최저시급 6030원 … 공장 인허가 기간 7~8개월로 단축

세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한 계좌로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도입된다. 가입 대상은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자영업자) 및 농어민이다.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합해 세금이 부과되고 만기 인출 때 수익의 2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이르면 내년 3월 시판될 예정이다.

▲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세금 혜택이 있는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막기 위해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운행기록을 작성하도록 했다.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800만원)도 도입한다.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 비과세특례 신설=해외상장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투자하면 세제혜택을 준다. 펀드의 해외 주식 매매·평가차익과 이에 따른 환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가입기간은 2016년 1월 1일~2017년 12월 31일이다. 투자 전용계좌를 통해 매수해야 한다.

▲상속재산 인적공제 확대 = 물가상승 등 경제적 여건 변화가 반영돼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가 확대된다. 자녀와 연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3000만원 → 5000만원으로,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공제액은 연간 500만원 → 연간 1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미성년자의 기준연령은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지고 연로자의 기준연령은 60세에서 65세로 올라간다.

국토·해양

▲ 지역개발사업 관리, 지방국토청이 담당 = 1월부터 지역개발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관리·점검 업무를 각 지방국토관리청이 맡는다. 또 시·도지사가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해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 협의하는 대상도 지방국토청으로 바뀐다.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한 업무 전반이 국토교통부에서 지방국토청으로 위임되는 것으로 현장 가까이에서 상시로 지역개발사업을 관리·점검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 공장설립 관련 규제 대폭 완화 = 10만㎡ 규모의 공장을 지을 때 인허가 기간이 18개월에서 7~8개월로 줄어든다. 일정 규모 이하 사업지는 소유권을 확보하기 전에도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먼저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건축위원회 등 인허가를 위해 거쳐야 하는 각종 위원회가 통합심의위원회로 합쳐진다. 또 관계기관 사이 의견이 갈리면 인허가권자가 합동조정회의를 열어 협의·조정하는 절차도 마련된다.

▲ 공항주변 소음대책지역 전기료 지원 확대 =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지정된 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여름철 냉방용 전기료 지원이 확대된다. 그동안 항공기 소음도가 75웨클이 넘는 인천·김포·김해·제주·여수·울산공항 등 6개 공항 주변 4만5000 가구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주던 7~9월 전기요금을 모든 주민에게 준다.

환경·기상·안전

▲ 5개 수질오염물질 배출기준 적용 =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나프탈렌, 포름알데히드, 에피클로로하이드린, 톨루엔, 자일렌 등 5개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이 새로 적용된다. 사업장은 기준 이하로 오염물질을 처리해 공공수역에 배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시 개선명령,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 슈퍼컴퓨터 4호기 가동 = 기상청 슈퍼컴퓨터 3호기를 대체하는 4호기(누리, 미리)가 내년 3월부터 본격 가동된다. 전 지구 예보모델의 해상도가 향상되고, 한반도 기후 예측에 필요한 국지 예측모델과 장기 예측모델 운영 작업도 함께 수행한다.

▲ 재난예방 대처요령 스마트폰으로 제공 = 국민안전처 인터넷 방송인 '국민안전방송 안전韓-TV'(tv.mpss.go.kr)가 지진, 한파, 낙상사고 등 위험 상황에 대한 대처법을 스마트폰으로 제공한다. 스마트 DMB 앱이 설치된 고객은 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

정부는 새해부터 미취업 청년들에게 더 나은 양질의 일자리 창업 기회를 주기 위해 청년취업인턴제를 확대하는 등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나선다. 지난 10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청년 20만+ 창조일자리박람회를 찾은 지역 청년들. 〈광주일보 자료사진〉

청년취업 인턴제 확대 … 병사 봉급 15% 인상
임금피크제로 임금 깎이면 최대 1080만원 지원
기상청 슈퍼컴퓨터 4호기 3월부터 본격 가동

고용노동·중기

▲ 최저임금 인상 =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급 6030원으로 올해 대비 8.1% 오른다. 내년 최저임금은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8240원, 월급으로는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으로 126만 270원이다.

▲임금피크제로 임금 깎이면 연 최대 1080만원 지원 =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지원기간을 2018년까지 3년 연장한다.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0% 이상 임금을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 연소득 725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 연 최대 1080만원까지 지원한다.

▲ 청년취업인턴제 확대 = 미취업 청년들에게 더 나은 양질의 일자리 취업 기회를 주기 위해 청년취업인턴제를 확대한다. 강소·중견기업의 인턴채용 목표는 1만5000명에서 3만명으로 확대한다. 인턴 후 정규직 채용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규직 전환지원금도 개편한다.

▲ 햇살론 지원 연장 = 금융 소외계층인 저신용·저소득 근로자를 위해 2015년말 종료 예정이었던 햇살론 지원이 2020년까지로 연장된다. 2016년 지원 규모는 보증 잔액 기준으로 4조4000억원까지 확대된다.

국방·병무

▲ 병사 봉급 15% 인상 = 병사 봉급이 작년보다 15% 오른다. 상병 월급은 작년 15만4800원이었지만 새해에는 17만8000원이다. 병장 월급은 19만7000원으로, 20만원에 가까워진다.

▲ 군(軍) 성폭력 예방교육 확대 = 군 복무 중인 장병은 성폭력 예방교육을 분기마다 1번씩 받아야 한다. 예방교육을 받지 않은 장병은 진급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해외 대형재난 발생시 전세기 임차 = 정부가 전세기를 섭외할 예산(15억원)이 별도 편성됐다. 우리 국적기가 자주 다니지 않는 지역에서 테러나 지진 등의 상황이 일어났을 때 전세기를 바로 띄울 수 있게 된다.

농식품·식약

▲ 순대 등 국민간식용 식품 안전관리 강화 = 국민간식으로 불리는 순대와 떡볶이 떡 등으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적용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시설개선 자금,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고 2017년까지 떡볶이 떡의 90%, 순대 등 가공식품 전체에 해썹 적용을 완료하기로 했다.

▲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 = 농업인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농업정책자금 중 농업인 대상 중장기 시설자금 대출금리가 기존 2.5~2.7%에서 2%로 낮아진다.

▲ 국산 쌀 중국 수출길 열린다 = 한국과 중국이 쌀 수출 검역요건에 합의해 국산 쌀을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중국에 쌀을 수출하려면 검역기관에 수출용 가공공장을 등록하고 해당 공장에 대해 중국의 현지 실사를 받아야 한다.

▲ FTA 피해보전직불제 보전비율 상향 =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제 보전비율을 90%에서 95%로 올려 FTA에 따른 농업인 피해 보전을 강화한다.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확대 = 소·돼지·닭·오리 사육시설 면적이 50㎡를 넘는 가축사육업 등록 농가가 허가 대상으로 바뀐다. 면적 10~15㎡인 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 사육시설 농가는 가축사육업 등록을 해야 한다.

통신

▲ 휴대전화 음성·메시지도 요금 한도 초과하면 고지 = 내년 6월부터 이동통신사업자는 예기치 않은 요금폭탄을 방지하기 위해 데이터서비스뿐만 아니라 음성·문자메시지도 약정한 요금 한도를 초과해 사용하면 해당 고객에게 고지해야 한다.

▲ IPTV 등에서도 재난방송 시청 가능 = 국민이 어떤 채널을 보고 있더라도 재난방송이 전달되게 하려고 기존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 보도전문PP(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국한됐던 재난방송 사업자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위성방송사업자, IPTV(인터넷TV)사업자가 추가된다.

공무원 연금·법무

▲ 공무원 연금제도 개혁 = 내년부터 공무원이 내는 연금보험료율(기여율)이 단계적으로 7%에서 9%로 인상되고,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 비율(지급률)은 단계적으로 1.9%에서 1.7%로 인하된다. 연금수령 연령은 현행 60세에서 단계적으로 65세로 올라간다. 또 공공기관에 재취업해 전체 공무원 평균 월소득의 1.6배(올해 기준 월 747만원) 이상을 받으면 연금 지급이 정지된다.

▲ 경력단절 여성 등을 위한 시간선택제 채용 요건 완화 =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16년도 시간선택제 국가직 공무원 선발시험부터 퇴직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까지 시간선택제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 선발시험에 합격하면 장기간 대기하지 않고 즉시 임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 가족관계등록 공시제도 개선 = 하반기부터 각종 신분증명서에 이혼경력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가족관계등록부 공시제도가 개선된다. 현재 신분관계만 기재한 '일반증명서'와 과거 기록까지 표시된 '상세증명서' 중 골라서 발급받을 수 있다. 신청인이 선택한 사항만 적는 '특정증명서'는 2019년 시행된다.

▲ 특허재판 관할 집중 = 특허권·상표권 등 침해로 인한 민사사건 항소심은 무조건 대전에 있는 특허법원에서 심리한다. 1심은 고등법원 소재지인 서울중앙·대전·대구·부산·광주지법 등 5곳에서 맡는다. 가압류·가처분 등 신청사건은 관할 집중에서 제외된다.

금융

▲ 등록주소 일괄변경서비스 = 1월 18일부터 금융기관 한 곳의 등록주소를 변경하면 거래하는 모든 금융사에 등록된 주소 정보가 한 번에 변경된다.

▲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 = 이전에는 각 협회 홈페이지를 일일이 찾아야 볼 수 있었던 금융상품 비교 정보를 1월부터 금감원 사이트에서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게 된다. 정기예·적금,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연금저축 등이 대상이다.

▲ 계좌이동서비스 확대 = 현재 페이인포 홈페이지(www.payinfo.or.kr)에서만 가능한 계좌이동 서비스 신청을 2월부터 각 은행 영업점과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도 할 수 있게 된다. 자동납부 변경 서비스의 범위도 확대되며 자동송금에 대한 변경서비스도 2월부터 개시한다.

▲ 비대면 실명확인 확대 =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서도 통장 등을 개설할 수 있는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가 은행권에 이미 도입된 데 이어 1분기 중 제2금융권으로 확대 적용된다.

▲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 인터넷 전문은행 첫 사업자로 케이뱅크 컨소시엄과 한국카카오은행 컨소시엄이 선정되면서 내년 하반기 중 '1호 인터넷은행'이 탄생할 전망이다. 연이율 10%대의 중금리 대출시장이 늘어나고 새로운 간편결제·송금 서비스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 서민정책금융 지원 확대 = 저신용·저소득 서민층을 위한 햇살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4대 정책 금융상품의 연간 지원 규모가 4조5000억원에서 5조7000억원으로 확대된다.

▲ 동네가게 신용카드 수수료 절반으로 축소 = 1월 31일부터 연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의 카드 우대수수료율이 1.5%에서 0.8%로 대폭 줄어든다. 연매출 2억 초과 3억원 미만의 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은 2.0%에서 1.3%로 낮아진다.

청년 고용 우수 중기 1천만원 지원·교통유발 부담금 인상

광주시

광주시는 내년부터 청년을 많이 고용한 중소기업에 지원금을 준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환경 지킴이 활동을 한 시민에게는 포인트를 지급하고 대형 시설물의 교통유발 부담금은 인상하기로 했다.

▲청년고용 우수 중소기업 지원=최근 1년간 청년을 많이 고용한 중소기업을 선정해 고용환경 개선 지원 명목으로 20개사에 1천만원씩 지급한다.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 가운데 80세 이상 유공자 수당을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한다.

▲민간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평가인증을 통과한 민간 어린이집 취사부의 인건비를 월 5만원씩 지원한다.

▲발코니형 빛고을 발전소 보급=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장려하고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려고 도입한 정책이다. 올해 85가구에 35만원씩에서 내년에는 250가구 40만원씩으로 보조금 규모가 커진다.

▲다가치 그린 동네 만들기 모바일앱 운영=스마트폰 앱으로 환경 지킴이 활동을 펼친 시민에게 포인트를 지급한다. 쓰레기 투기 지역 신고, 공공시설 평가, 환경교육, 캠페인에 참가하면 주어지는 포인트는 환경개선 사업에 기부하거나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

▲무료법률상담실 확대 운영=기존 상담실에 15명 안팎의 변호사를 상담관으로 위촉해 매주 화~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상담한다.

▲교통유발부담금 단위 부담금 인상=시설물 각층 바닥면적의 합에 따라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3000㎡ 이하에는 ㎡당 350원으로 변동없다. 3000㎡ 초과~3만㎡ 이하에는 ㎡당 800원으로 100원 인상, 3만㎡ 초과에는 ㎡당 1000원으로 200원 인상했다. 2021년까지 매년 인상 예정이다.

▲승촌보 캠핑장·축구장 유료화=무료로 이용하던 캠핑장·축구장을 유료화한다. 캠핑장 이용요금은 1만5000~2만원, 축구장은 4만~5만원이다. 광주 시민에게는 30% 감면혜택이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친환경농업 장려금 작목별 차등 지원·염전 전기료 인하

전남도

전남도는 내년부터 청년인턴제 사업을 통해 청년과 기업에 취업장려금과 고용유지금, 장기근속금을 지원한다. 또 친환경농업 장려금을 차등지원하고 미곡종합처리장과 염전 전기요금을 인하한다. 여성장애인을 위한 산부인과가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에 1곳씩 운영된다.

▲청년인턴제 사업=전남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도내에서 2년 이상 고용유지 경력이 있고 '청년'을 인턴으로 선발 또는 정규직으로 채용할 계획이 있는 5명 이상 300명 미만 기업에 취업장려금 500만원, 고용유지금 300만원, 장기근속금 400만원을 준다.

▲산학협력 취업 패키지 운영=도내 대학별로 30~50개 동종기업군과 협약을 체결한 후 산업 맞춤형 과정을 개설해 대학 재학생에게 기업이 원하는 직무능력 교육을 하고 지역기업 취업을 지원한다.

▲중기육성자금 지원 확대=내년부터 중소기업 운영자금을 1800억원에서 2200억원으로 늘리고 대출금리는 3.0%에서 2.7%로 내린다. 또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펀드 180억원을 운용한다.

▲청년농산업 창업 지원=만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영농경력 3년 이내인 '청년' 60명을 선발해 월 120만원의 창업안정자금을 최장 2년간 지급한다.

▲친환경농업 장려금 차등 지원=모든 친환경농업 작목에 대해 ha당 12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해주던 것을 새해부터는 작목별로 차등 지원한다. 유기농의 경우 ha당 벼 120만원, 채소 130만원, 과수 150만원을 지급한다. 무농약의 경우 ha당 벼 70만원, 채소 80만원, 과수 100만원을 준다.

▲미곡종합처리장·염전 전기요금 및 인하=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RPC(미곡종합처리장)와 염전 전기요금을 20% 할인한다.

▲거동불편 재가노인에 식사 배달=경로식당 이용이 어려운 거동불편 재가노인(총 1200여명)을 대상으로 자택까지 식사를 배달해준다.

▲여성장애인 전문 산부인과 2곳 지정·운영=전남 동부권과 서부권에 여성장애인 전문 산부인과 각 1곳을 지정·운영한다. 산부인과에 장애인용 화장실, 출입구·입원실 경사로 등이 설치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